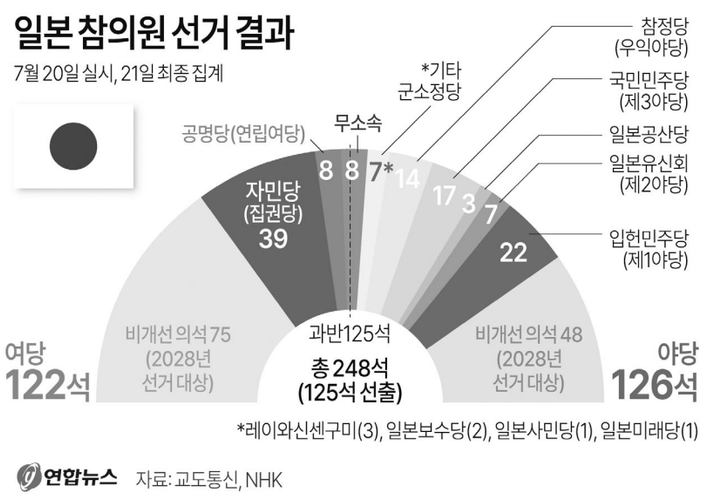
‘선거 연패’ 이시바 ‘벼랑 끝’…일본 정국 ‘지각변동’ 예고

자민당, 참의원 선거 과반 유지 실패…국정 동력·당내 구심력 상실
고물가·美 관세·‘日 퍼스트’ 우익 부상…중·참의원 모두 여소야대
“한일 관계, 큰 영향 없을 듯…보수파 총리 땐 관계 악화 가능성도”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 중간 집계 결과 과반 의석수 유지에 실패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취임 1년도 안 돼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같은 달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 올해 6월 도쿄도의회 선거에 이어 참의원 선거에서도 여당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로써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면서 이시바 총리는 국정 동력과 당내 구심력을 급속히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 정권이 중의원과 참의원 양쪽에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는 것은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2012년 정권 탈환 이후 이어온 독주를 사실상 끝내게 됐고, 일본 정국은 대규모 지각 변동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번 선거는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저조했고, 표심을 공략할 카드도 마땅치 않은 편이었다.

자민당은 2023년 연말에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로 홍역을 치렀으나, 이후 정치자금 제도 개혁에 소극적이었다. 여기에 이시바 총리가 올해 3월 초선 의원 15명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민당을 향한 국민의 실망감은 더욱 커졌다.

내각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한 또 다른 주요 요인은 고물가였다.

특히 작년 여름께부터 오르기 시작한 쌀값이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정부 비축미를 시장에 공급하며 쌀값 잡기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여기에 미국과 관세 협상이 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정체 상태에 빠진 것도 이시바 내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강화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여당의 이번 선거 참패로 일본 정국은 불투명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오리무중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시바 총리 퇴진은 물론 연립 정권 확대, 정권 교체 등이 모두 가능한 시나리오다. 변수가 워낙 많아 예측이 쉽지 않다.

다만 야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연합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시바 총리 거취다. 이번 선거를 ‘사실상의 정권 선택 선거’로 보고 있는 일본 언론은 여당이 패배하면 자민당 내에서 총리 끌어내리기 움직임이 확산해 이시바 총리가 버티기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향후 한일관계는 대체로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일본 내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다만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물러날 경우 누가 새 총리가 될 것인지에 따라 양국 관계가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우치야마 유 도쿄대 교수는 지난 16일 온라인 강연에서 “참의원 선거 결과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주요 야당은 양호한 한일관계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국제정보대 교수도 “이재명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인 ‘제3자 변제’를 유지하기로 하는 것이 일본에는 중요하다”며 “선거 이후 한일관계가 당장 달라질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다만 요시자와 교수는 이시바 총리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퇴진하면 한일관계 불투명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자 일본 종전 80주년인데, 이시바 총리는 역사 문제에서 고노 담화나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해 대응할 인물”이라며 자민당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과 같은 보수파가 정권을 쥐면 한일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에는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이 담겼다.

향후 한일관계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는 견해도 나왔다.

기미야 연구원은 “한국 정권은 강하고 일본 정권은 약한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일관계를 풀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한일관계를 잘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일본에 강한 요구를 하지 않고 참을성 있게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이 강하게 나가면 일본은 답하기 어렵고 한일관계는 혼란스럽게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1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임시 텐트 캠프에서 팔레스타인 실향민들이 트럭에서 물을 얻기 위해 모여 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굶주린 가자 주민에 총격…93명 사망

북부 유엔 구호트럭·남부 배급소서 등서 발생

가자지구에서 구호품을 기다리던 주민들에게 이스라엘군이 발포해 90명 넘게 사망했다고 로이터·AFP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이날 가자지구 각지에서 구호품 지원을 받으려고 몰려든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향해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가해 9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최근 가자지구에서 구호품을 기다리던 민간인이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날 사망자 수는 근래 많은 수준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민방위대에 따르면 이날 가자지구 북부에 도착한 유엔 구호트럭 행렬을 둘러싸고 있던 군중 가운데 80명이 사망했다. 또 남부 라파 구호소에서 9명이, 남부 칸유니스 구호소에서 4명이 각각 숨졌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식량 트럭 25대가 가자에 진입하자 굶주린 대규모 군중에 둘러싸였고 총격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번 총격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즉각적인 위협에 대응한 조치였다”면서 구호 차량을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21개월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가자지구 대부분 지역은 폐허가 됐고 주민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내몰린 상태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구호품을 탈취한다며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지난 5월부터 미국과 함께 만든 가자인도주의재단을 통해 제한적 배급만 허용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이 구호품을 받으러 온 주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5월 말부터 거의 매일 배급소 인근에서 총격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현재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 중재로 간접 휴전 협상을 진행 중이나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에 “민간인 사망과 기아 사태가 휴전 협상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란, 유럽 3국과 핵 협상 앞두고 ‘신경전’

25일 이스탄불서 예정…“협상 실패시 유엔 제재”에 반발

이란이 중동 전운 속에 중단됐던 핵협상을 재개하기로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3개국(E3)과 합의한 가운데 양측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E3가 핵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하자 이란은 E3가 자격이 없다며 반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유엔 안보리 회원국에 E3가 스냅백 조치를 발동할 법적, 정치적, 도덕적 자격이 없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앞서 이란과 E3가 한달만에 핵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것이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이 서방과 체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이란이 약속한 핵 프로그램을 동결·제한하지 않으면 유엔 제재를 복원하기로 한 단서 조항이다.

E3가 핵 협상을 앞두고 스냅백 수순을 압박하자 이란도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락치 장관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JCPOA를 탈퇴했을 때도 이란은 다른 참여국들에 의무를 준수하도록 설득했지만, E3는 약속을 저버리고 심지어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까지 했다”며 “이런 전력을 가진 자들이 ‘선의’를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E3는 자신들도 지키지 않았던 결의를 남용해 유엔 안보리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없다”며 안보리 분열을 심화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란은 언제나 의미 있는 외교에는 화답할 준비가 돼 있지만 망상적인 더러운 일은 물리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란과 E3는 오는 2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핵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여객선 화재 3명 사망·568명 구조

인도네시아 여객선에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68명이 구조됐다.

21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전날 정오께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북쪽 탈라우드 제도에서 술라웨시섬 마나도로 향하던 페리 ‘KM 바르셀로나 5호’에 불이 났다.

소셜미디어에 퍼진 사진과 영상에는 배가 불꽃과 연기에 휩싸인 가운데 대부분 구명조끼를 입은 승객들이 겁에 질린 채 바다로 뛰어드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 소식을 접한 현지 구조 당국은 해경 선박과 구조선 6척, 고무보트 등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들은 구명조끼 등에 의지해 바다에서 표류하던 생존자 총 568명을 구조하고 시신 3구를 수습했다. 현지 어선들도 생존자 구조를 도왔다.

당국은 또 페리 선미에서 발생한 화재를 약 한 시간 만에 진압했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1계>

※QR코드 :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 원]	비고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4타경 4696	1	광산구 월계로235-8, 17층 1711호 [쌍암동,쌍암동미르채리버파크오피스텔] 49.547㎡[신청채권자겸임차인제출된보정서상보증금230,000,000원]	오피스텔	222,000,000 222,000,000	
2024타경 72125	1	나주시 중야2길8, 제1층 제107호 [빛가람동,빛가람타워] 48.59㎡	상가	500,000,000 500,000,000	
	2	나주시 중야2길8, 제1층 제108호 [빛가람동,빛가람타워] 48.59㎡	상가	500,000,000 500,000,000	
2024타경 72385	1	나주시 문화로216, 1층114호 [빛가람동,도원상가빌딩] 67.165㎡	상가	591,000,000 591,000,000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상114,115호 경계벽없이이용중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4타경 4504	1	동구 계림동 1672 142.5㎡[공유자윤용수1/4지분전부]	대	52,486,175 52,486,175	일괄매각.지분매각.제시외건물포함[매각지분한함].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동구 계림동 1672 단층 58.85㎡ 부속건물 단층 광 9.25㎡[공유자윤용수1/4지분전부] 제시외 거실등 10.075㎡[공부상시멘트기와지붕,현황함석지붕]	단독주택		
[아파트]					
2024타경 4672	1	서구 풍암순환로10, 204동 2층209호 [풍암동,풍암지구호반,중흥아파트] 59.55㎡	아파트	185,000,000 185,000,000	
2024타경 72200	1	광산구 첨단중앙로181번길104, 제102동 제1층 제104호 [월계동,건영아파트] 99.96㎡	아파트	289,000,000 289,000,000	
2024타경 72408	1	북구 우치로537번길10, 103동 17층 1704호 [일곡동,동아아파트] 99.86㎡	아파트	330,000,000 330,000,000	
2024타경 72552	1	남구 봉선로84번길5-10, 201동 13층 1301호 [주월동,극동마이다스빌] 43.5572㎡	아파트	115,000,000 115,000,000	
2024타경 72729	1	광산구 임방울대로825번길19, 제8층 제802호 [쌍암동,에이엠시티5차] 33.1446㎡[을구순위번호5-26번지분포기있음]	아파트	88,000,000 88,000,000	대지권목적토지[광산구쌍암동682-1] 별도등기
2024타경 72958	1	서구 독립로195, 제2동 제2층 제208호 [양동,우진아파트] 2층71.60㎡ 지하실4.97㎡ 옥탑0.26㎡	아파트	319,000,000 319,000,000	
2024타경 73050	1	북구 일곡택지로60, 103동 18층1806호 59.915㎡	아파트	165,000,000 165,000,000	
2024타경 73098	1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2길12-7, 제101동 제2층 제204호 [동우아스트로아파트] 84.9545㎡	아파트	245,000,000 245,000,000	
2024타경 73142	1	남구 서문대로701번길21, 203동 8층809호 [진월동,진월2차한신아파트] 84.87㎡	아파트	278,000,000 278,000,000	
2024타경 73272	1	북구 면앙로31번길10, 104동 1층109호 59.39㎡	아파트	129,000,000 129,000,000	2024타경6432 [중복]
[기타]					
2024타경 71542	1	북구 용두마을길 50 주택및일용품소매점1층 116.37㎡ 2,3층각113.34㎡	기타	467,983,300 467,983,300	일괄매각
		북구 용두동 127-7 46㎡	대		
		동소 127 178㎡	대		
2024타경 71979	1	광산구 북문대로583번길35, 제1동 제1,2,지하1층 제104호 [수완동,디프리마수완] 1층70.0518㎡ 2층65.8724㎡ 지하1층135.4297㎡	기타	2,820,000,000 2,820,000,000	2024타경78161 [중복]
[대지/임야/전답]					
2024타경 71559	1	광산구 송학동 102-6 1272㎡	답	202,248,000 202,24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광산구 송학동 92-6 1009㎡[인접지경계구분불명토지로정확한경계확인측량요]	답	173,548,000 173,54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광산구 송학동 96-8 592㎡[인접지경계구분불명토지로정확한경계확인측량요]	답	104,784,000 104,78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5. 8. 5.[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5. 8. 12.[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22.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유승주